



## [정규과정]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주제 : 스마트폰 영화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만들어진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튜터\_김신정

## 스마트폰 영화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단편영화를 완성했다면 영화제에 출품해보는 것을 권한다.

기존의 단편영화제에 출품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작품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영화제에

출품하면 상영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을 통해

다양한 촬영 기법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2018년 9월 현재 개최되고 있는 다채로운 스마트폰 영화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 국내 영화제

## 고양 스마트 영화제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스마트폰 영화제로,  
2011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18년 8회째를 맞았다.  
단편 경쟁 부문으로 지역, 성별, 나이 등 제한 없이 국내인이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고양 스마트 영화제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양시 대화도서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롯데시네마 라페스타에서  
사전 상영 형태로 개최된다.

## 2018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영화제

“꿈 꿀 자유, 영화는 자유다” 라는 슬로건을 달고 세계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단편영화를 제작,  
일반 상영관에서 공개하는 영화제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동기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고 상금 천만 원, 총 상금 삼천 육백만 원의 규모로  
2018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와  
ECC 극장 및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된다.



## 웰컴투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

6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주 촬영지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동막골 마을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영화제로, 2018년 3년째를 맞이했다. 문학과 영화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 협동심을 심어주고자 기획되었으며, 학생들이 학부모 또는 지도교사와 함께 기획에서 제작 촬영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제이다. 2018년 상영작은 강원도 13개 학교에서 출품한 총 20편의 작품 중 본선에 오른 10편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다. 우수작품은 한강국제영화제에서 교차 상영된다.

## 29초 영화제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색 영화제로, 2011년 시작해 올해 7년째를 맞이하였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중화된 이후 사람들은 짧으면서 임팩트가 강렬한 콘텐츠를 선호한다. 29초영화제는 이런 흐름에 맞춰 짧은 영상에 메시지를 담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29초 분량의 초단편 영상물을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해 출품할 수 있다. 이에 매년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29초 영화제의 출품작 접수는 10월 12일까지이며, 공식 홈페이지([www.29sfilm.com](http://www.29sfilm.com))에 접속해 온라인 출품하면 된다.



## 국제 영화제



###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 (TSFF)

2012년 아리랑 코리아 스마트폰 영화제로 시작되어 2018년 7회째를 맞이한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는 북미지역의 국제영화제로,

2018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토론토 대학교(세인조지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폐막작으로 한국 오인천 감독이 아이폰6s로 촬영한

‘야경:죽음의 택시’가 선정되어 주목받았다.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에는 영화 제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아이폰 필름 페스티벌 (iPhon Film Festival)

2010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국제영화제로,

2018년에는 9월 7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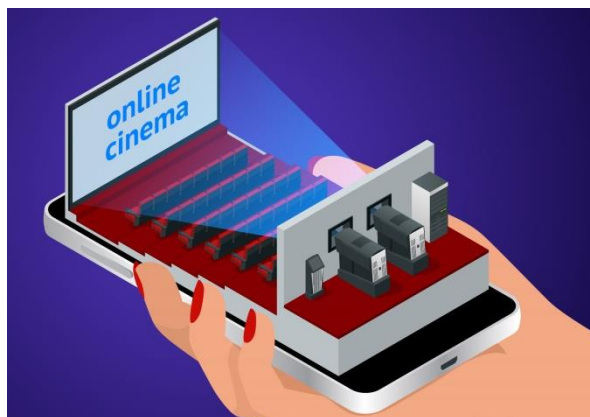
실력은 있지만 제작 자금이 부족한 감독과 배우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으며 애플과는 관련 없는 비영리조직이 주관한다.

아이폰뿐 아니라 다른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영상도 출품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등 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영상의 70% 이상을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면 출품할 수 있다.



## 모바일 필름 페스티벌 (Mobile Film Festival)

올해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필름 페스티벌은  
세계인권선언을 주제로 한다.  
크레딧 포함, 전체 영화의 길이가  
최대 1분인 것이 특징이다.  
2018년 10월 11일까지 출품을 받고 있으며,  
www.mobilefilmfestival.com에서 출품할 수 있다.  
영화제는 온라인 상에서 개최되지만 시상식은  
201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참고문헌 및 출처〉

스마트폰 들면 나도 영화감독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235751>

패럴스마트폰영화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선보여

<http://famtimes.co.kr/news/view/55067>

“평창 작은 자연축제서 큰 즐거움 만나요”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3676>

오인천 '야경' 캐나다 '토론토 스마트폰영화제' 공식폐막작 선정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5698#09Pr>

고양스마트 영화제 홈페이지 <http://gsff.kr/>

아이폰필름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s://iphoneff.com/>